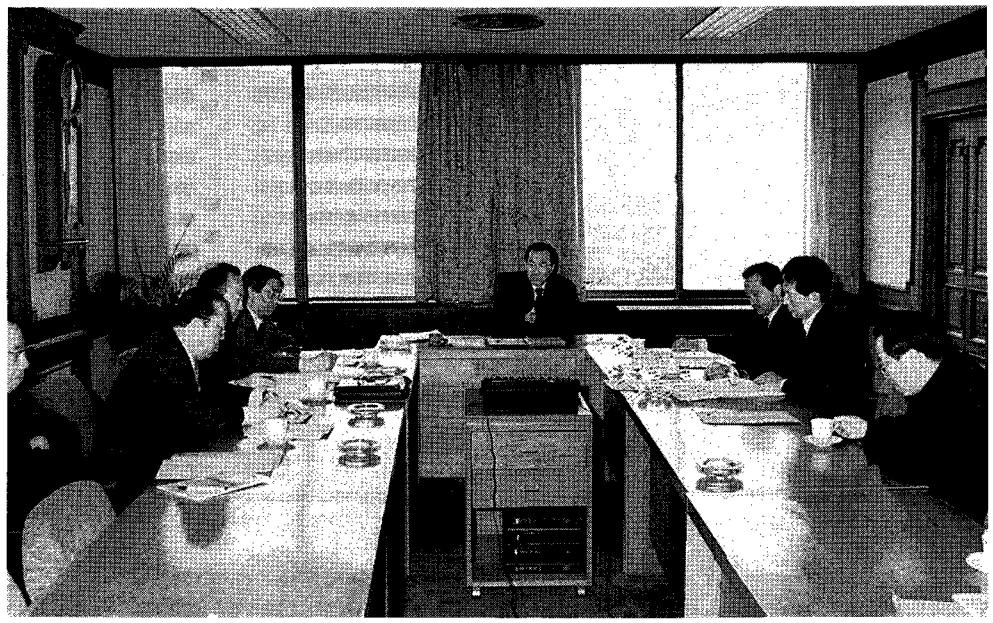
바람직한 地域密着型 弘報活動

– 贊成할 自由도 保障되어야 –



"

최근 우리 사회에 개방과 민주화가 추진됨에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本誌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홍보담당 전문가를 초청, 우리나라 원자력홍보의 현 주소와 앞날의 좌표를 가늠해 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

□ 參席者(가나다順)

김신종 상공자원부 원자력발전과장
김찬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문위원
심창생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안전실장
정준극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홍보부장
홍주보 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본부장

□ 司會

이교선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 때 : 1993년 3월 11일

□ 곳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의실

사 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 과정의 한 현상으로 님비증후군과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으로 원자력 관련시설의 입지확보가 벽에 부딪힘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원자력 홍보활동의 활성화가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당국의 지원으로 원자력홍보에 관한 전담기구도 신설되고 또 각 관련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원자력 홍보활동을 벌임으로써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홍보활동이 정작 받아들여져야 할 일반 국민들이나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는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계도 이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벌여온 원자력 홍보활동의 방법과 그 성과를 한번 분석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동안 원자력 홍보활동의 주체로서 일선 사업소에서 겪은 경험에서 얻은 반성과 과제 등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신종 먼저 원자력홍보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란 정상적인 입안, 검토, 결재의 과정을 거쳐 그것이 국민에게 공개될 때 이것을 정책 또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홍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와 같은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자력계는 비교적 쉽게 원자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상황이 급변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이 실시해 온 원자력홍보 실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됐고 또 작년 3월 원자력홍보 전담기구로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원자력홍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 원자력계로서는 무척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창생 우선 원자력은 핵무기에 의한 파괴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야누스적 양면성으로 말미암아 원자력홍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자력홍보에서 제기되는 문제 또한 전 세계적인 동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6·29 이후 원자력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력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 등이 각기 실시해 왔었고, 작년에 발족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매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과연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홍보활동을 벌일 때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인간이 만든 물건인 이상 100% 안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원자력설비의 안전도를 다른 산업설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인간이 개발한 산업설비 중에서 개발 초기부터 체계적, 조직적으로 가장 안전을 고려한 것이 원자력설비인데 아직까지 그 개발 자체가 원자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는 국민의 인식을 쉽게 불식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홍주보 「PA」라는 것은 「Public Acceptance」인데 우리가 아무리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용어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원자력 홍보활동시 안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다소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안전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보더라도 절대적인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설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설비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이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원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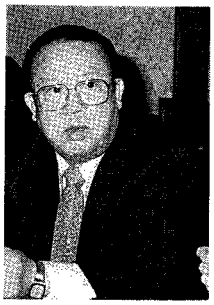
홍보에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극 그동안 원자력계에서는 반핵운동이나 환경운동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고, 이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자력홍보가 필요한 이유는 원자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핵 및 환경운동에 대해 이론적으로 대응하고 그 전략을 수립하여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핵의 이슈로 내세우는 몇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반핵단체나 재야세력이 중심이 되어 내세우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이들은 반핵운동을 정치적인 세력확장의 도구나 체제부정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둘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신물질주의나 신자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과학기술과 그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을 지역주민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이슈로서 발전원가 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에 대한 가치관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體系的인 弘報가 아쉬워

김찬옥 그동안 원자력계는 나름대로 원자력홍보 활동을 하여 왔지만 그 성과의 측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그동안의 홍보활동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1989년 4월과 1991년 10월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원전의 추가건설에 대한 설문에 89년 응답자의 52.8%가 찬성, 27.4%가 반대하던 것이 91년 같은 내용의 설문에는 응답자의 72.2%가 찬성,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용태세가 20%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것으로 볼 때 그동안의 홍보활동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극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응답자의 약 70%가 원전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볼 때 여론조사의 신빙성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활동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弘報要員의 資質 높여야

사 회 지금까지 원자력홍보 활동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활동의 내용과 기법, 홍보주체와 요원에 대한 반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신종 먼저 홍보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성할 점을 몇가지 지적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원자력사업에 대한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홍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간의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둘째, 홍보 담당자들의 주요 현안문제들에 대한 문제해결방식의 홍보계획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홍보활동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부인하는 등 현지의 지방행정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지 못한 점입니다.

김찬옥 우선 반원전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과 전략이 부족합니다. 또 원자력홍보 요원의 자질과 소양을 좀더 개발해야 하고 홍보요원들의 자발적인 분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만 반성하고 노력한다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확실한 정책과 태도를 표명할 때에 우리 원자력계도 원자력홍보를 소신껏 펼칠 수 있습니다.

정준극 정부와 여당의 정강정책에도 에너지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에너지문제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발표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원자력계 종사자들에게 원자력사업에 대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창생 홍보요원은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심리학적인 문제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원 양성에 그러한 훈련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충분치 못한데,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원전의 추가건설이나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반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할만 합니다. 또 지역주민이 지니고 있는 의식구조는 일반 국민의 의식구조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일반 국민의 여론과 차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핵단체에 대하여는 그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반대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자력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전문지식과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반핵단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주보 우선 홍보요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원자력홍보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홍보요원도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와 같은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 회 현재 우리 원자력계는 원자력홍보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도 부실하고 발행부수도 적은 반핵단체의 유인물이 우리의 홍보물보다 효과를 더 발휘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물의 효과에 대해서 김찬옥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찬옥 원자력 관련기관에서 많은 홍보물이 발간되고 있는데 보는이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홍보물이 어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 높은 홍보물이 반핵단체의 유인물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홍보물이 체계적인 배포망의 미비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배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반핵단체의 유인물에는 생존권 등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많은데 반해 원자력 관련기관의 홍보물은 논리적이고 이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는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많은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발행부수도 늘리고 내용도 조금은 감성적인 면에 치중하여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심창생 한전에서는 과거 3, 4년간 원자력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목록을 제작하여 홍보요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곧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발간하고 있는 「이달의 원자력발전」은 7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각 기관이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많은 출판홍보물로 인한 홍보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비디오를 통한 홍보에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하거나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여 예비군 교육장, 민방위 교육장에 배포하여 상영케 하고 지역유지급 인사에게 배포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극 홍보물은 일반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를 골라서 제작한 다음에 홍보물을 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展示館의 機能 再考해야

사 회 일본의 도마리원전을 방문했을 때 원자력전시관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마리원전측이 전시관의 40% 정도만을 원자력홍보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60%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전시관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홍주보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의

전시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례와 원자력발전의 원리 모형도 및 원자로, 핵연료다발과 각종 원전관련 홍보자료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도마리원전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자력과 자연스럽게 가까와질 수 있도록 원자력전시관내에 수영장, 회의장, 영사관, 문화재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원자력전시관을 단지 에너지와 원자력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시관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시관의 시설을 확충, 보완할 때는 전시관이 단순히 원자력 관련자료를 모아놓은 정보센터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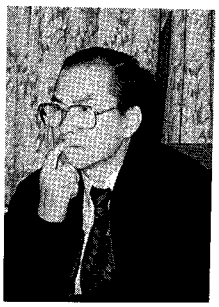
심창생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원자력전시관은 시공 당시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센터를 모델로 삼아 만든 것인데 일본의 도마리원전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공관으로서의 역할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각 원전에서는 원자력전시관을 지역주민의 결혼식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 원전본부와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형성과 유대강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의 전시관 외에 많은 과학관이나 기념관 내에 원자력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에 일본의 도쿄전력관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신종 전시관은 어떤 대상이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운영체제도 달라져야 합니다. 원자력전시관은 많은 내방객들이 이용하지만 도심 내의 과학관이나 전시관은 성년층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관이나 전시관의 설계나 디자인도 청소년들의 기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으며 운영체제도 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김찬옥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삼청동과 궁정동 일대의 안가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원자력계의 총의를 모아 그 중 쓸만한 건물을 원자력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이용권을 주면 그곳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풍치 있는 원자력전시관이 되도록 한다는 의지를 신 정부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支援事業에 弘報가 不足

사 회 지난해에는 전력사업의 현안문제인 발



전소 건설 신규입지의 확보와 원전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됩

니다.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종 총체적으로 보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효과가 한계이윤선상에서 우리의 기대에 미치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은 지원사업의 초기단계로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보다는 지역주민 상호간의 이해조정에 치중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홍주보 저희 울진원자력본부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죽변면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도서관이 준공된 후 지방일간지에는 울진군에서 주관하여 도서관을 건립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지원사업법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출자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에 감사라는 형식을 빌어서라도 이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과 발전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원전의 이해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창생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심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원전이 아닌 다른 산업설비가 유치됐을 때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원전의 경우를 비교합니다. 두번째는 일본의 경우 정부와 전력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 수준에 못미치는가 하는 등 일본의 경우와도 비교합니다. 따라서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런 점들을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에 있어 원전의 기여도는 큰데 지원사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에는 대폭 확대하여 원전 주변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시 주민자녀에 대하여 특별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능직 및 별정직 직원의 채용시에 지역주민 우선고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준극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당연히 배정될 예산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기관의 예산으로도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한전이 금전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原子力政策은 汎政府的으로 수행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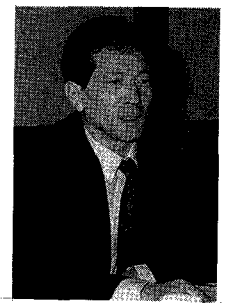
사 회 그럼 마지막으로 원자력홍보의 개선방향과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종 앞으로의 홍보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홍보대상을 다음과 같은 네 그룹으로 분류하여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일반국민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원자력을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동일시하여 무조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덕망있는 원자력 관련인사를 통해 원자력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원자력 관련 기념일 등을 정해 이날을 기해 대대적인 기획홍보를 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수준까지 홍보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그룹으로는 언론과 여론지도층 인사에 대한 홍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하겠지만, 중간단계로 국민들의 원자력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기관과 여론지도층 인사에 대한 홍보전략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원전시찰과 각종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번째 그룹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지역주민들이고, 마지막 그룹은 청소년층입니다. 이

들에게는 장래를 내다보는 홍보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원자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술적, 과학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표지향적인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심창생 앞으로의 홍보는 첫째, 일반국민이 정부나 전력사업자를 믿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펼쳐야 합니다. 둘째, 수동적이고 사후대응적인 홍보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사전기획적인 차원의 홍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력사업과 폐기물 처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밀착형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원자력정책이 범 정부적인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정준극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찬반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는 조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지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만이 판을 치고 반대자들의 협박과 위협으로 지지운동과 홍보활동을 정상적으로 펼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이 불식되고 찬반의 의사가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보장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부탁합니다.



김찬옥 원전 주변지역의 언론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원자력을 지지하는 기사를 쓰는 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어느 기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용기있는 정론을 펼칠 수가 없겠구나, 원자력계에서 언론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자력계에서 용기있는 인사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맹이를 맞을 망정 바른 말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홍주보 앞으로 홍보는 「공개」, 「정직」, 「명확성」이라는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원자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욕을 가지고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홍보요원에 대한 홍보교육과 외국과의 교환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세도 새로이 해야 합니다.

김신종 앞으로 원자력홍보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큰 줄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요한 계기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의 동향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홍보요원에게 원자력사업에 대한 철학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요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4곳의 원전 본부장의 보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4명의 원전본부장들은 모두 원자력전문가입니다. 실제 원전의 운영은 원전 건설책임자와 발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굳이 본부장이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홍보전문가나 홍보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 본부장이 되면 원전사업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재원이 없어 홍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원자력홍보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체계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각 원자력 관련기관의 홍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요원의 교육에 대한 논의와 여론조사 실시방안 등을 협의하는 가칭 「원전홍보협의회」를 발족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사 회 장시간에 걸쳐 매우 귀중한 경험과 의견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